

# 당인주거지의 역사 (연혁과 옛 지도)

## ■ 당인주거지

무로마치 시대 중기 이후에는 규슈 각지에서 중국과의 무역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1635년 일본 정부는 나가사키 이외의 지역에서의 중국교역을 금지했고, 이에 따라 규슈 각지의 중국인들은 나가사키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나가사키는 중국과의 무역 기지로 크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1670년대에 이르러서는 나가사키의 전체인구 약 6만 명의 6분 1인 약 1만 명이 중국인이었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중국에서는 무역 제한이 해제되어 일본과 교류하고자 나가사키로 오는 중국 선박의 수가 급증하였지만, 일본에서는 무역 통제령이 내려져 무역허가를 받지 못해 수많은 중국 선박이 허무하게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무역통제가 강화되면 될수록 밀무역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당인주거지는 이러한 밀무역을 단속하고, 무역을 철저히 통제할 목적으로 중국인을 수용하기 위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1688년에 현재의 나가사키시 칸나이 마치인 주젠지고(長崎村十善寺郷)가 있었던 이곳에 건설하기 시작하여 이듬해인 1689년 4월에 완성되었습니다.

당인주거지는 높은 토담과 대울타리를 사용하여 이중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5곳의 경비초소가 설비되어 있는 등 엄중한 감시하에 관리되었습니다. 주거지에는 중국의 선원들과 상인들이 수용되었고, 기와를 얹은 연립주택 형식의 2층 건물이 20채 있었으며, 일본인은 기녀와 지역관리만이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중국인의 자유로운 거주가 법률적으로 허가된 것은 1871년의 청일 수호 조약이 체결된 후의 일이었습니다. 또한, 안세이(安政)시대의 개국과 함께 당인주거지는 철폐되었기 때문에, 중국인의 대부분은 신치와 오우라의 외국인 거류지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히젠국(肥州) 나가사키 지도, 분킨도 발간, 1802년, (1장 지본색인 68.0cm×47.0cm) (주) 나가사키 문헌사 소장  
에도시대에는 목판화로 인쇄된 나가사키의 시내지도가 안내지도 겸 기념품용으로 많이 판매되었습니다. 이 지도는 에도시대 후기인 1802년경의 지도로, 메이지유신이 일어나기 66년 전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왼쪽 구석에 적힌 남쪽이라는 글자 윗부분이 이곳 “당인주거지”입니다. 당인주거지는 1689년에 중국인을 수용하기 위해 건설되었습니다. 해안에는 부채꼴 모양의 데지마와 정사각형의 신치 창고가 보입니다. 신치 창고는 당인주거지의 짐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702년에 만들어졌습니다.